



2013. 4월(제19호)

오인회 소식

발행인의 말

느낌의 의타성(依他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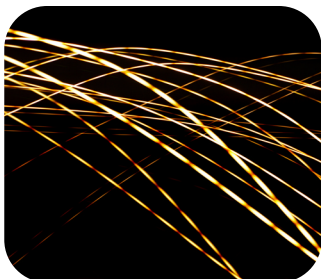
이것은 저것에 의존하고, 저것은 이것에 의존한다는 것이 의타성입니다.

손을 매끄러운 탁자표면에 대면 ‘매끄러운’ ‘느낌’ 이 납니다. 그렇다면 그 매끄러움은 탁자 고유의 느낌일까요? 만일 바이러스가 탁자 위를 움직인다면 매끄럽다기보다는 울퉁불퉁하여 거칠고 거대한 산맥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낌’ 이란 탁자와 손, 탁자와 바이러스 사이의 ‘관계’ 에서 오는 반응이지 탁자 고유의 느낌이 아닙니다. 즉 ‘탁자와 손 사이의 관계에서 매끄러운 느낌이 일어난다’ 고 할 수 있지요.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느낌과 기분도 상호의존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선을 곧다고 느낄 때, 직선과 무엇 사이에서 ‘곧다’ 는 ‘느낌’ 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곡선을 배경으로 기준삼는 마음입니다. 즉 과거에 경험했던 곡선의 느낌이 내적인 기준이 되어 지금 보는 직선과 대비되며 곧다고 ‘느껴지는 것’ 입니다.



그와 같이 한 사람을 ‘곧은 사람’ 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아침하는 사람’ 의 느낌이 그 순간 배경으로 자리잡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느낌을 배경으로 삼을 때만 ‘곧은 마음’ 이 느껴지지요. 어린 아이는 결코 어떤 ‘곧음’ 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또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불안을 더 자주 느낀다면 당신은 ‘안전을 우선하는’ 내면적 특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느끼는 어떤 느낌도 내적인 무언가를 배경으로 한 상대적 느낌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순간 한번 살펴보세요. 무엇이 현재의 느낌을 일으키는지, ‘의식’ 됩니까? 그렇게 매순간 자신에게 느껴지는 느낌이, 내면의 배경에 올라온 어떤 기준 때문임이 보여진다면, 이제 다음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때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의 어떤 경험도 올라오지 않고 아무런 내적 배경도 없다면, 어떤 느낌일까?”

越因

8차 깨어있기 계절수업이 5월 25~26일에 있습니다.



이번 계절수업에서는 대승기신론의 핵심 중 하나인 의타성과 느낌에 대해 알아보고 체험하려 합니다.

우리는 '느낌'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지금 자신의 몸과 마음에 일어난 생생한 '느낌'을 어찌지 못하고 결국 느낌에 끌려 행동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느낌이란 어떻게 일어나며, 이 생생한 느낌의 끌림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진 느낌으로부터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이는 자신이 현재 생생하게 느끼는 '현재의 느낌'이 오류일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해봄으로써 가능합니다.

이번 계절 수업에서는 바로 이 '느낌'이라는 것이 어떻게 오류일 수 있는지 체험해보고, 그 느낌으로부터의 자유와 그 자유로부터의 명료한 행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일시 : 2013년 5월 25일(토) 오후 2시 ~ 26일(일) 오후 3시
- 장소 : 미내사 함양수련원
- 참가비 : 10만원



‘보는 자’는 만들어진 개념에 불과하다 법재 인터뷰(상)

법재님은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각종 심신치유 관련 워크숍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계십니다. 「깨어있기」 프로그램과 오인회 모임을 통해 법재님이 경험한 체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내사와는 어떻게 처음 인연을 맺으셨나요?

저의 파트너가 「지금여기」를 구독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강좌에도 참가를 했었구요. 저는 2000년 정도에 저의 파트너를 만나면서 알게 된 거죠.

정신세계에는 관심이 많으셨던 건가요?

고2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 교회 선생님 중 한 분이 라즈니쉬 책을 권해주었어요. 특이한 경우였죠. 그때부터 라즈니쉬 책은 다 찾아 보았고 그러면서 정신세계 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초기에는 '서양 신비주의' 라고 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카발라나 오컬티즘이라고 하기도 하고, 은비학이라고 하기도 하는, 많이들 아시는 신지학 쪽 내용을 2,30대에는 많이 봤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수행경험도 있으셨겠네요?

서양 신비주의 계열. 또 이런 분야를 좋아하는 한국인 이라면 많이 하는 단전호흡 관련 훈련들을 했었구요. 증산도도 대학교 때 후배 한 명이 너무 열심히 하면서 저보고도 가자고 했는데 저는 거부감이 없으니까

1~2년 정도 다니기도 했죠. 그곳은 주문 수행 위주였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들어가지 않던군요. 책을 읽고 이런저런 모임에 참여하는 게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아! 저 사람이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확실한 스승으로 삼아서 깊이 공부한 것은 없었죠.

「깨어있기」는 그런 과거의 경험들과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제일 큰 것은 목표가 선명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젊은 시절의 이런저런 탐구들은 흔히 말해 유위법, 무위법으로 구분한다면 유위법 내지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근본적인 걸 말한다고 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다 상대적인 것에 머무르면서 근원적인 것을 한다는 맥락이 느껴졌어요. 「깨어있기」를 접하면서 근본 자리, 즉 근원에 대한 공부를 정식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오인회에 참여하면서 느끼신 거나 체험하신 것이 있다면?

일단은 최대한 '아닌 것'을 쳐내는 작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유용하면서도 필요한 작업이었던 것 같구요. 대략 2009년에서 2011년의 시기에 매주 화요일에 있는 오인회를 거의 한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거처를 지방으로 옮기면서 어쩔 수 없이 못나오게 됐는데, 그때쯤엔 사실 저도 오인회에 계속 나가는 것이 무언가 제한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2년 정도는 직접 참가는 못하고 간접적으로만 접했죠. 그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골에 내려가서 혼자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뭔가를 한 것은 아니었구요. 물론 근본적인 추구는 계속 되어졌지만, 아무래도 챙겨지는 것은 좀 부족했죠. 하지만 시골에 내려갈 당시에는 따로 떨어져서 뭔가 고요하게 깨야할 부분이 있다는 느낌이 있었죠.

오인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틀이 되는 것 같았다는 말씀이시죠?

월인님이야 어차피 다 열어놓으시고, 참가자들로 하여금 근본자리를 알아차리게 하는 것을 진심으로 안내하시는 것 외에는 하시는 일이 없는데, 안내를 따르는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의지하게 되고, 또 라즈니쉬 제자 중에서 라즈니쉬가 죽기 전에는 깨달은 사람이 안 나오다가 죽고 나서 몇십 명이 나왔다는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도 있는 것 같구요. 가끔씩 메일 아니면 통화로 연락을 드리거나 드물게 직접 만나 뵈거나 했는데 중간 중간 예기치 못하게 자극을 받은 했습니다. 이를테면 미내사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하라지 글 중에서 ‘마음을 넘어서 자리’ 라는 문구와 관련된 대화가 있었어요. 우현님이 미내사에서 행한 강의 때 보여주었던 발표 자료 속에 있었던 마하라지의 말 중 일부였습니다. 그 표현이 계속 마음 속에 유념되어진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때 월인님이 “마음을 넘어서 자리도 마음인데 어떡할 거냐?” 그런 식의 질문을 던지시며 저에게 자극이 되었었죠.

최근에 하신 체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월인님이 오인회에서 행하신 ‘대승기신론’ 강의 중의 내용과 연관지어 말해 보자면, 본각(本覺)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든, 드러나면 어차피 시각(始覺)이 될 뿐인데 그 시각은 더 이상 본각이 아니고, 그렇다고 그런 시각(始覺)이 없는 것도 아니지요.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논리적으로나 생각으로 정리가 안 되는 영역이 되버리고 말죠. 그런 말들이, 의도치 않게 생각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흔히 말하는, 생각, 개념 이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서 있는 그런 자리에 대한 어떤 감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정리가 되네요. 구체적으로는 지난 1월 30일쯤일겁니다. 항상 걸리는 질문이 있잖아요? “미진한 것이 있는가? 아직 덜 된 것 같은가? 무엇을 더 해야 할 것 같은가? 남은 게 있는가?” 이런 질문들인데 이론적으로야 다들 알잖아요. 개념을 넘는다던가 아니면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던가. 이론적으로야 답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본인은 아니라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저도 그 전에는 체험적 측면에서 본다면 솔직하게 ‘아직 못봤다.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날 밤에 처음으로 ‘아! 이걸 말한 거였구나!’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전과 후가 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주신다면?

켄 월버의 『무경계』를 다시 보는데 ‘보는 자는 모든 것을 보지만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한다’는 문장이 나왔어요. 그 전에 월인님이 ‘눈은 모든 것을 보지만 눈 자신은 보지 못한다’는 문장에 맺혀서 한참을 붙잡고 계셨다는 것이 생각나더군요. 전에는 그 문장을 볼 때 물론 문자적인 답은 나오기도 했죠. 그러니까 근원 자리에서 모든 상대적인 것들이 피어나지만, 보이는(혹은 앎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은 현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근원은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뉘앙스로 답을 낼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문자적으로는 이해해도 실제로 나한테 주는 자극, 통찰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은 그 문장이 갑자기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전과는 다르게 와닿았습니다. ‘이상한데? 보는 자가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은 맞는데 왜 못볼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못보게 되어 버렸지?’ 그 짧은 순간에 이렇게 강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 의문이 생기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뒷장으로 넘어갔는데 켄 월버가 문자적인 답을 써놨어요. 그 이유는 ‘애초에 보는 자는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보는 자’ 라는 것도 만들어진 개념에 불과하니까. 그것도 분명히 이전에 알았던 내용인데, 그 순간에는 그것이 진짜로 느껴졌습니다. 진짜로 알아졌다고 해야 하나? ‘보는 자라는 것이 애초에 없다’ 라는 것에 대한 진짜 느낌, 실감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단지 만들어진 개념이자 언어일 뿐이라는 것, 어떤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앎일 뿐이라는 것이 너무나 여실히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아차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 보이는 대상도 없는 것이고, ‘본다’ 라는 행위도 이름 붙여졌을 뿐이지 없는 것이라는 후속적인 인식이 실감되어졌죠. 그 전에는 문자적인, 머리로 하는 이해였는데 분명히 차이가 있었어요.

그럼 일종의 체험으로 알게 되신 건가요?

예, 체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든 생각이 “아! 이런 거였어?”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왜 눈 앞에 뻔히 보고 있었으면서도 몰랐다고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표현도 지나고 나서 만들어진 것이고 주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측면이었죠. 죽어라고 보고 싶어했던 부분이었고 스스로가 확인되어지는 그런 체험이니까 그것이 제일 의미가 있겠죠. 선불교에서는 화두를 잡는다고 하잖아요? 돌이켜 보면 저의 경우에는 특별한 문구나 단어를 찾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거의 빠지지 않고 몇 년을 참가했던 오인회를 2년여 동안 가지 못하고 혼자 있으면서도 계속 근원에 대한 궁금함을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의식이 자연스럽게 그 쪽으로 흘러간다고 할까요? 특히, 통찰이 일어난 그 즈음에는 거의 하루 종일 계속 주의가 그 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궁금해 죽겠네.’ 이런 측면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주의가 자연스럽게 하루 종일 그에게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늘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가끔 월인님을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들이 저에겐 아주 강한 자극이 되곤 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한 2~3개월 전부터는 뭔가 막연한 감이 왔던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면. 좀 더 무언가 가까이 다가가는 듯한, 말로 표현하기는 힘든데 미세하거나 미묘한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들이 어디로 귀결될지에 대한 것은 몰랐죠.

그때의 느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주시다면?

‘좀더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인데 이것이 제가 생각한 것이라기보다는 느껴졌던 것이었습니다. 말로는 이 정도로 표현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몇 주 전에는 수면 중에 그 전에 없었던 미세한 느낌적 체험들이 감지되곤 했습니다.

느낌이라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부분이 있겠네요.

사실 제 경우엔 언어를 가지고 많이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날의 체험도 개인적으로 언어의 정체, 본질에 집중되어졌던 흐름의 연장선이었던 같습니다. 양자물리학이나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 뇌신경학 이런 분야에서 보면 언어의 본질에 대한 여러가지 접근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많이 챙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챙기면서 속에서는 언어나 개념의 본질에 대한 인식들이 점점 쌓여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그날 ‘보는 자가 보는 자신을 못본다’는 명제에 대해, 그것은 ‘애초에 ’보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선언이 너무나 당연하게 다가왔죠. 무슨 말 이냐면, ‘보는 자’ 라는 것이 어떤 실체나 본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저 말(언어)로 만들어진 하나의 개념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실해진 것이었습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아이슈타인이 상대성이론을 말하면서 시간과 공간의 절대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시간, 공간이라는 개념을 동시적으로 부르기도 하구요. 그런데 상대성 원리에 대해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 이란 정도로만 인식하고 말거든요. 그런데 제 경우엔 ‘아! 이것이야말로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의 허구성을 증명하는 하나의 발견이구나!’ 이런 식으로 다가온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면 입자와 파동의 상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를 하나씩 쬐는데도 파동처럼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유명한 과학실험이 있잖아요? 리처드 파인만 같은 천재 물리학자도 이 부분은 더 이상 논리적 설명이 필요없는 정답이라는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입파’ 라는 개념을 만들면서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인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입자와 파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불완전한 개념이고 허구라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라고 보아야겠지요.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들은 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시간, 공간, 입자, 파동 이란 개념들은 실체를 표현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실재 존재하고 있다고 여기면서 단지 그것들이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거나 혹은 뭔가 신비한 부분들이 있다는 정도의 통찰까지만 이야기하죠.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봐서, 이러한 물리학적 사실을 통해 그 단어들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 그리고 나아가 모든 언어가 그럴 수 있겠다고까지 보는 것입니다.

깨어있기와 오인회에서는 감지, 감각 연습을 하면서 개념과 말의 허구성에 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면에 자리잡은 상태에서 그런 이론들을 접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죠. 그리고 또 이것도 있는데요. 러셀에 관한 만화책이 하나 나온 것이 있죠. 『로지코믹스』라고. 그 책에 보면 유명한 러셀의 패러독스[Russell's paradox]가 나오니

**지방에 계신 분들을 위한
오인회 원격화상모임이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 계신 법계님과 성암님, 여수에 계신 지원님, 그리고 보은의 타오님과 칼라님께서 꾸준히 참가하고 계십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 중 참가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카메라와 스피커가 갖추어진 컴퓨터를 준비하셔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원격화상통화 시스템을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참가비는 매달 10만원입니다.

다. 러셀이 1901년에 발견한 집합론의 패러독스인 데요. 공식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 속하지 않는 집합, 즉 자기 자신의 원소가 되지 않는 집합들의 집합인 $Z = \{x \mid x \notin Z\}$ 에서, “Z는 자기 자신에 속하는가, 또는 속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만일 Z가 Z에 속하지 않는다면 Z의 정의에 따라 Z는 자기 자신에 속한다. 또 Z가 Z에 속한다고 하면, Z의 정의에 따라 Z는 자기 자신에 속하지 않는다. 어느 경우이든 모순에 도달한다.”

그리고 이것을 좀더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 어떤 책을 설정합니다. 즉 집합 대신 책을 이용하는 거죠. 어떤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자신의 본문 내용 속에 책 자신의 책 제목을 언급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책들의 제목을 쭉 리스트로 해서 본문을 형성하는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책 자신의 제목은 자신의 본문 내용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있다고 하면 그 책은 자신의 제목을 본문 중에 언급한 책이므로 해당 리스트(즉, 책의 본문)에서 빠져야 합니다. 그리고 없다면 그 책은 조건에 해당되므로 자신의 본문 중 리스트에 올라가야 합니다. 즉 어떤 경우이든 모순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나 하면 집합이라는 것이 원래 명확한 정리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 일종의 순수 사실로 존재한다고 생각되었는데, 그것의 모순 때문에 집합론이 무너져버린 거지요. 또한 이 패러독스는 순수 논리적인 것이므로, 논리학의 기초를 위태롭게도 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구요. 거짓말쟁이의 역설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거짓말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할때, 만약 그 사람이 진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앞의 말은 참말(진실)이 되어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과 모순이 되고, 그 사람이 참말(진실)을 하고 있으면 참말을 하는 데도 “나는 거짓말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므로 이 역시 모순이 됩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말이라는 게 어떤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비판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한 예일 뿐인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언어 전체가 허물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것이 오히려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냐?’ 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경우에는 저러한 발견이나 사실들로 말미암아, 언어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아까 나온 집합의 역설로 인하여 집합론이 무너져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책을 보니 논리학 자체까지 무너지는 겁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아예 “언어 자체

의 본질은 그 내용에 있지 않고 사용에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언어의 본질을 통하여 많이 접근했었고, 그래서 그 날 ‘보는 자’ 문제도 그렇게 연결된 측면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자리는 논리나 내용으로 접근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던데 ‘그럼 나는 내용으로 접근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날의 알아차림 전에도 내용적으로는 모두 알고 있었기에 꼭 그런 것은 아닌 듯 합니다. 분명 머리로는 혹은 사유로는 똑같이 아는 것이지만 그 전에 아는 것과 그 때 알게 되었던 것은 달랐으니까요. 비유하자면, 전자는 ‘사과의 맛’에 대해 열심히 설명으로만 접근하는 것이라면 후자의 경우는 실제 한 입 베어물고 그 맛을 ‘실감’으로 맛보아버린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일련의 접근이 통찰로 연결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답인데 굳이 분석해 본다면 그동안 쌓여왔던 임계치를 마침 그 날 넘어갔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 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그것도 지금으로서는 실감적인 체험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실감으로 느끼는 그런 체험의 순간. ‘그 자리’와 같은 말은 전에 쓰던 표현이니까 단지 응용한 것이겠구요. ‘실감의 체험’이란 말이 제일 맞는 것 같네요.

글자 그대로 ‘보는 자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과 연결되어 결국에는 ‘나’라고 하는 주체도 없다는 것이겠죠. ‘모든 것이 현상이다’, ‘근원은 알 수 없다’라는 말들도 지금 생각해 보면 가까이 가기 위해 만들어진 표현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일종의 체험 이후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약간의 심리적 혼란이 있었는데, 흔히 말하는 관성 내지는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습이 작용하는 것이 관찰되더군요. ‘나’에 대해서 집중되어지는 에너지의 강도가 여전히 존재하니까 거기서 오는 심리적 혼란이겠죠.

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셨나요?

제가 아까 언어적 본질 쪽으로 접근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감지가 언어 빼고 아는 느낌으로 가는 거잖아요. 저의 경우 의도적인 감지. 감각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각 개인의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월인님도 이 길은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지. 감각이라는 것도 하나의 참고 내지는 보조 도구로 사

용하는 것이라고 오인회에서 언급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오히려 근원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품고 있었죠. 그러면서 '언어(개념, 앞)의 본질 혹은 정체'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말입니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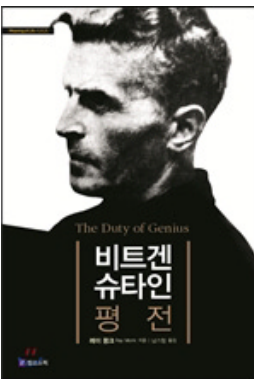
법재님이 추천하는 책들..



엘리гант 유니버스

초끈이론과 숨겨진 차원, 그리고 궁극의 이론을 향한 탐구여행
브라이언 그린 지음

현대 천문학의 우주론은 마음 공부에도 시사해 주는 바가 무척 크다.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가장 최신의 과학인 천문학을 통해 봤을 때는 단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 입자와 파동이 상보성만이 아니라 더 많은 참고점들이 있다. 그러한 새로운 이론이나 발견들을 어떤 '새로운 사실'로 받아들임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다 해도 그것도 결국 하나의 '만들어진 개념'일 뿐임을 아는데 유용하다 할 수 있겠다. 이것이 이 책을 권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비트겐슈타인 평전 : 천재의 의무

레이 몽크 지음

비론 어느 수준에서 멈춘 듯한 기미가 보이긴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분명 뭔가를 '보았다!' 불교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독각승(獨覺乘, 스승 없이 홀로 깨달은 자)'이라고나 할까. 두 권의 그의 저서(논리철학논고, 철학적 탐구)를 직접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 평전을 보는 것도 좋다. 그는 20대 초반 어느 순간에 말(언어, 개념, 분별)의 본질 혹은 정체에 대해 알아차렸던 것 같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그 알아차림이 점점 더 정제되어지고 선명해진 듯 하다(하지만 어떤 한계도 보인다). 그의 삶의 궤적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각성 후에 조심하고 유념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파악해 볼 수도 있다.



CEO 안철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철수 지음

꼭 '안철수' 만을 권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 삶, 행동으로 '그것'과 관련된 것을 직, 간접적으로 보여준 이들이라면 모두 권해질 수 있겠다(그 자신 본인들은 그것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근본 자리' 그 자체가 아니라, 그에서 나오는 생명력과 그 힘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를테면 고 정주영 현대회장도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는 잠시 논외로 두자. 그렇다고 꼭 이들처럼 뭔가를 성취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아니다. 다만 마음을 넘어선 자리, 생각과 앞을 넘어선 자리에서 결국 드러나는 것은 어떤 행위들이 될 것인데 그에 대한 보기들 중에 한 사람으로 안철수 같은 이를 권해볼 수 있겠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 쓴 책들이 아니라 그가 직접 쓴 책들을 권해본다. 꼭 직접적으로 '근원에 대한 공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그 '자리'를 향한 갈망과 성실함과 진실함에 대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다.

각의 단계 불각(不覺)-상사각(相似覺)-시각(始覺)-본각(本覺)

대승기신론을 보면 깨우침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불각(不覺)이 있습니다. 불각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사각(相似覺)이 있습니다. 상사각은 깨달음 비슷한데 아직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시각(始覺)이 있습니다. 드디어 깨침의 맛을 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각(本覺)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각을 이룬 것이죠.

이렇게 불각-상사각-시각-본각으로 각의 단계를 나누는데 불각은 기본적으로 나와 대상이 동시에 일어남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명(無明)이라고 하지요. 밝지 못합니다. 왜 나라는 것이 생겨나는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항상 대상 때문에 생겨나지요. '대상'이 없는 곳에는 '나'가 없어요. 그 말은 '나'라는 것은 의식의 일부분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상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대상은 무명(無明)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물이 흘러가다보면 퇴적되는 부분이 생기죠. 그 퇴적되는 부분이 일종의 대상이 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생겨나는 것이 주체감으로서의 나인 것입니다. 불각을 넘어서면 이제 생주이멸(生住異滅) 중 멸상(滅相)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상사각은 각과 비슷합니다. 상사각에 이른 사람은 나와 대상을 비롯한 모든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가변적인 것임을 일단 아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주체감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주체감과 동일시되어서 주체감을 자기로 알고 있었는데, 상사각에 이른 사람은 주체감을 대상으로서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체감도 일종의 '느낌'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즉 그 말은 우리의 본질인 생명의 힘이 주체감에서 떨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시된 사람은 절대로 떨어져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사각인은 '나'라는 것이 생명의 힘이 동일시된, 에너지가 많이 뭉쳐있는 일종의 초점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상사각은 모든 생각이 다르지(異) 않은 생명의 표현임을 안 것입니다. 이상(異相)이 사라집니다.

다음에 시각(始覺)에 이른 사람은 모든 현상이 현상임을 보고, 더불어서 현상이 아닌 자리가 분명한 겁니다. 현상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지요. 현상을 통해서 이제 제대로 맛을 본 겁니다. 그리고 나와 대상이 동시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것을 본 겁니다. 보고 경험하고 느낀 겁니다. 이 시각과 본각은 근본적인 면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시각과 본각은 차이가 없는데, 물에 뜨는 것에 비유하면 물에 뜰 줄 아는 사람과 물에서 자유롭게 수영하는 사람의 차이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막 뜨는 걸 경험한 사람은 시각이고, 자유롭게 멀리 가서 물에 빠진 사람도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본각인 것이죠. 자유롭게 물에 뜨는 겁니다. 근데 시각인 사람은 물에 떠 있다가 자기가 떠있는지 정확히 잘 몰라서 다시 가끔 가라앉기도 합니다. 그 기간이 좀 오래 되면 뜨는 것이 자리를 잡죠. 그런데 뜨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했다는 측면에서는 본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각은 나와 대상의 분열로 인해 생겨난 '내가 상주(常住)한다'는 환상을 넘어간 것으로 주상(住相)이 사라진 것을 말합니다.

본각은 모든 나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황을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아채지만, 그 알아채는 나라는 것도 일종의 현상임을 분명히 보는 겁니다. 그 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은, 그 순간 또 다른 동일시가 있기 때문임을 동시에 알아채는 것입니다. 동일시되어 있다는 것을 동시에 알아채면서 동일시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본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각이라는 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죠. 각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시각과 본각은 본질에 있어서는 같으나 그 철저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각은 모든 현상의 배후에 있는 미묘한 업(karma)까지도 파악하고 영향받지 않으므로 생상(生相)을 넘어갔다 말합니다. 즉 생주이멸(生住異滅)이라는 모든 현상의 가장 기초가 되는 생상(生相)까지 넘어간 것을 말합니다.

현상의 펼쳐짐, 업(業)-전식(轉識)-현식(現識)-지식(知識)-상속식(相續識)

기신론에서 얘기되는 식의 종류를 우리 식으로 약간 풀어보겠습니다. 이 다섯가지 식은 계속해서 나오며 반복되므로 중요합니다. 업(業)이라는 것은 관성의 기반으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생, 개인의 전생이라기보다는 유전적인 인류 전체의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는 거대 생명

체로서 살아왔던 삶도 있을 것이고 바이러스로서 물 속에서 산 삶이 있을 것이고, 육지로 나와서 양서류, 조류, 포유류로서 지내온 삶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생명체와 유기체의 삶을 살아온 모든 정보를 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세포에서 다세포에 이르기까지, 다세포에서 기관과 조직을 갖춘 지금의 인체와 에너지장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경험의 흔적들이 쌓여져 있는 것이 업이라는 것이죠. 보통은 업을 얘기할 때 개인적인 윤회전생(輪廻轉生)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개인의 윤회전생이라기보다는 생명체 전체의 윤회전생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업에서 조금 움직이기(動) 시작하지요. 무명의 힘으로 인해서 불각(不覺)이 움직이면 업식(業識)에서 점차 전식(轉識)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구를 전(轉)자가 보입니다. 움직였다는 것이지요. 무엇이 움직일까요? 바로 그 움직일 무엇이 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의 움직임이 전식이지요. 이때 움직임에 의해 능히 보는 마음(能見相)이 생겨나요. 주체와 대상의 분열이 일어나 이제 뭔가를 감각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의식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갓 태어나서 감각하지만 의식은 못하죠. 의식을 하려면 마음 안에 경험의 흔적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마음이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합니다.

다음은 현식(現識)이죠. 즉, 대상들 간의 경계가 드러납니다. 이때부터 구별하고 나누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감지입니다. 일체 경계를 나타내기 시작하죠. 나누고 분별하면서 그 이후부터 지성과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별이 없으면 결코 지혜, 지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분별을 나쁘게 볼 것이 아니에요. 지성과 지혜와 통찰의 기반이죠.

그 다음은 지식(知識)입니다. 알 지(知)자로 썼지만 지혜 지(智)자로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지혜 지(智)자의 지식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식에 오면 이제 경계를 단순히 나누는 것에서 조금 더 분별이 심화되어 올바르게 올바르게 옳음, 오염되고 오염되지 않음이 나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염법(染法)과 정법(淨法)을 분별하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호불호(好不好)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분별이 깊어지고 나뉘져 호불호가 분명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좋은 것을 즐기고 좋지않은 것을 괴로워하는 고통(苦樂)이 생겨납니다. 이 고통에 연결된 마음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속식(相續識)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집착을 통해 만물 만사가 이어지지요.

만상(萬象)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생각과 느낌의 네트워크(network)라고 하죠. 그래서 고통의 망념이 끊이지 않는 것, 이것을 상속식이라고 합니다.

생각의 세계를 살펴볼까요? 생각은 이름들간의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요. 그런데 하나의 이름은 결코 그 이름 자체만으로 존재할 수가 없죠. 하나의 단어는 결코 그 단어 하나만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 하듯이 핸드폰은 수화기와 송화기, 문자판 등으로 나뉘지지요. 그리고 케이스와 회로 등 수많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분해해 보자구요. 회로를 한번 분해해볼까요? 회로를 분해해보면 기판과 납땜, 금속선이 지나가는 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얇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름들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처럼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안다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즉 미지(未知)로 미지(未知)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얇'입니다. 그래서 얇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얇이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을 뿐이지요. 그 믿음이 깨우침의 믿음이나 아니면 무지한 믿음이나 아니면 합리적인 믿음이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기신(大乘起信)입니다. 대승이라는 본질에 관한 믿음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깨우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깨우친 믿음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대승기신론이에요. 논문의 이름을 그냥 Enlightenment, 깨우침, 이런 것으로 하지 왜 믿을 신(信)자를 썼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믿음이란 의미심장한 용어입니다. 마명이나 원효는 우리의 모든 얇이라는 것이 단지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 즉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 것이지요. 그것을 분명히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우쳤다'고 느낀다면, 혹은 누군가 '내가 뭘 안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은 신(信) 속에 갇혀있다고 보면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깨우칠 나란 없어, 깨우침이란 없어." 이렇게 말하지만 마음 속 깊숙히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난 알고 있어. 난 경험했어. 난 깨우쳤어.' 이런 생각이나 믿음이나 느낌이 있다면 신(信) 속에 갇혀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식(識)을 일으키는 처음의 움직임을 바로 무명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 이유없는 무명의 바람입니다. 밝지 않음, 어두움, 혼돈의 업이 움직여 이 모든 세상을 일으킨 겁니다. 업의 움직임은 드러난 생명력의 불균형에서 옵니다. 그 업에서 감각이 생겨나면 감각의 작용으로 인해 감지가 이루어지고 감지가 분별하면서 거기에 이름과 생각이 붙고 그것들이 끊임없이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생명의 힘이 차고 흐르는 것, 이것이 생명의 네트워크, 상속식인 것이죠. 앞으로 대승기신론에서 나오는 업,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